

□ 연구요약

연구 목표	“현장의 한국학, 사회인문학의 공유자원화”는 인문학이 구성되는 ‘현장’이 전지구적 연계 속에서 역동적으로 변화하고 있다는 현실인식에서 출발한다. 이 연구 아젠다는 정치적, 사회적, 문화적으로 격변하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현장에 기반을 둔 새로운 인문학 패러다임을 창출하고자 한다. 첫째, “현장”의 개념을 새롭게 인식하고 학술적 차원에서 현장을 재조명할 것이다. 대학과 사회, 연구와 사회문화적 현실, 학술과 대중 사이의 간극을 극복하고 현실의 문제에 인문학이 개입하는 새로운 방식과 영역으로서 현장을 재인식한다. 둘째, 연구의 주체와 대상이 분리됨으로써 불가피하게 현실사회와 연구 사이의 시차와 단절이 존재했던 기존 연구방법을 대신하여, 연구자와 대중, 대학과 사회, 기관과 시민 등 다양한 주체들이 유연한 방식으로 연구-교육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플랫폼-연구소를 제시할 것이다. 셋째, 인문학을 하나의 공유자원으로 재인식하고자 한다. 인문학의 공유자원화는 공공적 목적에 의한 지식생산이나 생산된 지식의 공적 사용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다. 다양한 학문과 지식, 태도와 가치들을 접합하는 과정 전체, 그리고 인문학이 문화적 사회적 실천과 결합하는 융합적 형태 모두를, 사회인문학 공유자원화의 대상으로 인식할 것이다. 넷째, 다양한 인문학적 현장을 근거로 여러 주체들과 지식 자원들이 교차하고 공유하는 상황을 연구함으로써, 탈권위적이고 자율적이며 지속가능한 인문학 생태계를 형성하고자 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플랫폼-연구소의 활동에 자율적으로 참여하면서 개방적이고 자생적인 인문학 생태계를 형성하는 것이 이 연구 아젠다의 최종 목표다.
연구 요약	국학연구원은 지금까지 인문한국 사업으로 “21세기 실학으로서 사회인문학”을 추진해왔다. 이는 인문학 본연의 사회성, 공공성, 비판성을 회복하는 사회문화적 기획이며 보편적 한국학을 추구하는 학술 의제였다. “현장의 한국학, 사회인문학의 공유자원화”는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 격변하는 세계 속에서 미래를 향한 인문학의 가치와 효용, 그리고 방법론을 ‘현장’ 속에서 새롭게 모색하고자 하는 시도다. ‘현장’은 연구의 주제지만, 연구 주체와 분리되고 고정된 대상이 아니다. 연구소는 연구 인력과 역량이 고정되는 기지가 아니라 연구동기와 역량, 연구자원, 다양한 참여와 확산이 교차하는 플랫폼이 된다. 플랫폼-연구소를 현실화하는 장치는 프로젝트 중심의 학제간 조직 리서치워킹그룹이다. 리서치워킹그룹은 인문한국 사업에서도 국학연구원의 중심 연구 조직이었다. 현장의 사회인문학에서는 리서치워킹그룹에 연구자는 물론, 시민단체, 문화예술인, 교육기관 등이 참여하도록 한다. 이를 통해 인문학 연구의 사회적 효용성을 재고하며, 다양한 융합 프로그램 개발의 기반으로 삼고자 한다. 특히 융합 특성화 프로젝트인 “3 Step Plan”을 개발하여, 연구기획-문화기획-참여기획을 연계시켰다. 이처럼 현장-연구-문화예술-교육을 연쇄적으로 연결시킴으로써 인문학적 성찰과 실천을 심화시켰다. 이런 융합적 연구-실천 프로그램은 지역인문학센터(가칭 “연세 공공인문학센터”)와 효율적인 연계를 통해 더욱 강화될 수 있다. 또한 인문학적 현장이 글로벌한 수준에서 형성된다는 점에도 유념하여 리서치워킹그룹의 확산단계는 물론 구성단계부터 글로벌한 차원의 연계를 모색할 것이다. 현장 중심의 연구

	- 실천 네트워크는 한반도라는 공간적 제약에서 벗어나 전지구적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이때 글로벌한 연계를 통해 다양한 정보와 지식을 교류하고, 문화예술의 표현과 공감을 이끌어냄으로써, 현장의 사회인문학을 전지구적 공유자원으로 확산시킬 것이다. 리서치워킹그룹은 도시와 기술, 이주와 난민, 재난과 공동체, 전통과 혁신, 인권과 감성, 배제와 소외의 6개 팀으로 출발할 예정이다. 이 6개의 아젠다는 세계의 다양한 문제들에 대한 인문학적 성찰, 문화와 교육적 실천을 필요로 하는 ‘현장’들을 선정한 것이다. 그러나 실제 연구과정에서는 세부 과제에 따라 소규모 클러스터를 구성하여 유연하게 현실의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한다. 다양한 주체들이 리서치워킹그룹과 클러스터에 참여하고 매체 융합적 문화예술기획 및 참여기획을 실천함으로써 자치와 공생의 지식문화 생태계를 구성할 것이다.
기대 효과	이 연구 아젠다는 위기에 처한 인문학이 현실의 정치, 문화, 사회적 격변에 대응하는 하나의 패러다임을 제공한다. 전통적인 인문학 연구가 현실의 변화를 따라가지 못해 생기는 시차와 간극을 극복할 수 있도록, 현장을 기반으로 한 의제선정과 플랫폼 형태의 연구 조직 등을 제시할 것이다. 연구자 이외의 다양한 주체들이 함께하는 플랫폼-연구소의 참여 방식을 창안하여, 연구-교육-문화예술이 융합된 사회인문학 모델을 제시할 수 있다. 이로써 기존에 다루지 못했던 사회 현실의 문제를 인문학에서 다룰 수 있을 것이다. 특히 논문 형태를 벗어난 다양한 성과물을 개발하여 뉴미디어 시대 인문학의 표현을 선도할 것이다. 플랫폼 연구소의 조직 방식을 개발하여 연구와 다양한 사회적 실천이 상호 개입하고 변화시키는 결합 모델을 제시했다. 특히 “3 Step Plan : 학술기획-문화기획-참여기획”을 통해 인문학 연구, 문화적 실천, 교육적 확산을 체계적으로 융합시키는 모델을 제안하고자 한다.